

CH2. 지정학적 맥락 속의 세계

발제자께서는 원문의 제 2장 “지정학적 맥락 속의 세계”를 요약해주셨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모델스키(Modelski)의 「세계 리더십 순환 모델」을 활용하면 세계 패권의 흐름과 미국의 현 지정학적 위치를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이 모델이 내포한 강대국 중심주의와 역사결정론적 한계를 함께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본 장의 요지는 지정학뿐 아니라 학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만이 아니라 글로벌 의제를 이끄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며, 현재 미국이 겪는 육상 분쟁과 과잉팽창의 문제 역시 이러한 장기적인 권력 순환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델스키의 모델은 거시적인 권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원문에 나왔다고 이 모델에 내재된 지리적 관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입니다. 첫째, 국가의 영토성만을 정치의 유일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둘째, 권력의 중심이 되는 지구의 일부 분에만 국한하여 지정학을 설명한다는 점입니다(95p). 이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소수 패권국 중심의 서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의 구조적 한계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고전적 지정학의 전통인 국가 중심주의를 철저히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 내에서 유의미한 지정학적 행위자는 오직 세계 지도국, 도전국,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뿐이며, 분석의 초점은 모두 이들 부강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남부로 대변되는 국가들은 도전, 전쟁, 지도력의 체계와 무관한 존재로 치부됩니다. 이는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들이 지정학적 무대에서 소외되고 주변화, 비가시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중심의 거시적 시각은 특정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연지리적 환경이나 그 공간 위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갈등 양상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현대의 지정학적 갈등은 단순히 지도국과 도전국 간의 물리적 충돌로만 빚어지지 않습니다. 자원의 분포, 기후 변화로 인한 경관의 변모, 그리고 이에 따른 인구 이동과 국지적 갈등이 유기적으로 얽혀 복합적인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델스키의 접근은 이러한 다층적인 공간적 맥락을 배제하고, 오직 강대국의 권력 투쟁이라는 단일한 층위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스키의 권력 척도와 지리적 관념은 다극화되고 상호 연결망이 치밀해진 현대 세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지정학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심부 권력에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그동안 배제되었던 지구 남부의 공간적 실체와 이들이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새로운 체계 내에 편입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